

# 중국 조선족 속담의 구조와 이데올로기

김 승 찬\*

## 차 례

- |                  |                    |
|------------------|--------------------|
| 1. 서론            | 4. <제한성 표기>에 대한 검토 |
| 2. 속담의 구조        | 5. 결론              |
| 3. 속담에 나타난 이데올로기 |                    |

## 1. 서 론

속담의 개념을 학술적으로 규정짓기는 꽤 어렵다. 일찍이 『속담론』을 펴낸 김사엽도 그 개념을 규정짓지 못하고 17세기 영국의 작가 제임스 호우웰(James Hawel)의 속담의 3요소 - 간결(shortness)·의의(sense)·함미(salt)를 들고 거기에 통속성(popularity)를 첨가했을 뿐이고<sup>1)</sup>, 이기문은 J. 삐노(J.Pineaux)가 “속담은 일반적으로 은유의 형식으로 된 꼭 짜인 관용구로서 민중의 지혜와 그 생활 경험을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한 것을 끌고 와서 “그 것(속담)은 본질적으로 민중의 것이다. 그 구슬 같은 한마디 한마디는 민족사회의 오랜 경험과 지혜를 단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 하고, 속담은 사회적 소산이며, 그것에는 향토성·민족성·인간성·시대성이 반영되어 있고, 형식은

\*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김사엽, 『속담론』, 대전출판사, 1953, pp. 8~11.

간결한 것이 그 특징<sup>2)</sup>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구비문학개설』에서는 속담의 요건을 “① 민중 속에서 생성된 관용적 표현으로서, ② 보편적 의미를 강조하기 위하여 쓰여지는, ③ 일정한 기능을 갖고 세련된 말이다.”라 추출하고, 속담의 특징은 ① 사회적 소산 ② 민중의 생활철학의 반영 ③ 향토성의 반영 ④ 시대상의 반영 ⑤ 형식의 간결 ⑥ 언어생활의 윤택이라 하였고,<sup>3)</sup> 연변의 김기종은 “속담이란 인민대중이 역사적인 생활행정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 견해와 인식을 압축된 언어 형식 속에 형상적으로 표현한 성구론적 결합의 하나이며 또 구전문학의 한 형태”<sup>4)</sup>라고 하였으며, 김성우·김창학이 엮은 『문학학습사전』에서는

“속담은 대중의 집체적 지혜에 의하여 창조되는 것으로 그들의 경험과 교훈이 반영된다. 그러므로 속담 속에는 인민 대중의 풍부한 생활경험과 사상감정, 념원 등이 반영되어 있으며 근로인민들의 슬기와 지혜, 사상적 지향이 집약적으로 반영된다. 특히 인민들의 생활경험을 통하여 얻어진 날카로운 사회의 정치적 견해가 표현된다.”<sup>5)</sup>

라 하여 속담은 민중의 공동적 지혜에 의하여 창조된 것이므로 그 속에는 생활 경험과 교훈·사상감정과 염원·슬기와 지혜·사상적 지향과 정치적 견해 등이 반영되어 있다고 하였다.

필자는 위와 같은 속담의 제 요건이나 특징을 참조하여 연변 속담의 구조를 천착해보고, 또 연변 속담에 나타나고 있는 이데올로기를 밝혀보고자 하는데, 이를 위하여 다음의 자료집을 검토의 대상으로 삼았다.

연변대학 조선어문학부 《조선어속담사전》 편찬조, 『조선말속담사전』,  
연변인민출판사, 1981.

김영환 편저, 『조선말속담분류집』, 연변인민출판사, 1987.

리춘학, 『우물안 개구리』, 연변인민출판사, 1990.

이 세 권에 수록된 속담을 중심으로 하고,  
현금석, 『조선말속담분류사전』, 동북조선민족교육출판사, 1993.  
이기문 편, 『개정판 속담사전』, 일조각, 1980.

2) 이기문, 『속담사전』, 일조각, 1962, 「머리말」.

3) 장덕순 외 3인, 『구비문학개설』, 일조각, 1971, pp. 188~190.

4) 김기종, 『조선말속담연구』, 동북조선민족교육출판사, 1989, p.21.

5) 김성우·김창학, 『문학학습사전』,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1993, p.92.

엄병섭 외, 『조선속담』,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4. [한국:탑출판사, 1990]

사회과학원 언어연구소편, 『조선말대사전』, 사회과학출판사, 1992.  
[한국:동광출판사, 1992]

이 네 권에 실려 있는 속담을 보조 자료로 활용하였다.

## 2. 속담의 구조

연변지방 조선족이 전승·보존하고 있는 속담의 실상은 명확하게 알 수 없으나, 그 쪽에서 펴낸 속담집에 수록된 속담에서 남북한의 속담과 중복되는 속담을 제외하면, 『조선말속담사전』에는 770여개(전체수록속담의 9.7%), 『조선말속담분류사전』에는 160여개(전체수록속담의 6.7%), 『우물안 개구리』에는 46개(전체수록속담의 8%)가 있음을 보아 그들이 만들어 전승·보존하고 있는 속담수는 전체속담의 8%선임을 알 수 있다.<sup>6)</sup>

연변지방에서 구전되는 속담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양쪽의 속담 가운데 유의적(類義的) 속담의 구조를 비교해보면, 연변지방의 조선족이 우리와 같은 언어자산을 가지고 있고, 사유체계도 근본적으로 같기 때문에 속담의 구조도 같다고 말할 수 있다.<sup>7)</sup>

- (1) [한국] 등잔 밑이 어둡다.  
[연변] 발등 밑이 어둡다.
- [한국] 바늘 구멍으로 하늘 보기.  
[연변] 솔밭 구멍으로 하늘 보기.
- [한국]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  
[연변] 차기 보고 놀란 새 꼬부랑 나무 보고 놀란다.

6) 『조선말속담사전』에 수록된 총속담수는 8000개, 『조선말속담분류사전』에 수록된 총속담수는 2329개, 『우물안 개구리』에 수록된 총속담수는 555개이다.

7) 『문학학습사전』에서는 속담의 형식 구조에는 ①보통문장형 ②질문형 ③명령형이 있고, 대조적 구성은 흔히 선행절이 조건, 후행절이 결론으로 되어 있다고 하였고, 류은중은 속담의 의미적 특성을 구조적 유형으로 분류해 보면, 의미의 동질성에 기초하여 ①비유형 ②진술형이 있고, 의미의 상대성에 기초하여 ③대립형 ④접충형이 있다고 하였다. 이들이 밝힌 형식구조, 의미구조는 우리의 속담구조와 일치한다.

- (2) [한국] 꽃감 꼬치에서 꽃감 빼먹듯.  
 [연변] 꽃감 꼬치 빼먹듯.  
 [한국] 벼룩의 등에 육간대청을 짓겠다.  
 [연변] 벼룩 등에 짐 실기.  
 [한국] 자주꿀뚜기를 진장 발라 구운 듯하다.  
 [연변] 자주꿀뚜기.
- (3) [한국] 말 가운데 소도 간다.  
 [연변] 말 탄 놈도 서울이요, 소탄 놈도 서울이다.  
 [한국] 삼대 발에 쭈대.  
 [연변] 다복쭈도 삼발에 나면 곧아진다.  
 [한국] 우물 안 개구리.  
 [연변] 우물 안 개구리 하늘 높은 줄만 알고 땅 넓은 줄은 모른다.
- (4) [한국] 맺은 놈이 풀지.  
 [연변] 매듭은 맺은 사람이 풀어야 하고, 자물쇠는 제 열쇠라야 열 수 있다.  
 [한국] 뛰어야 벼룩.  
 [연변] 뛰어야 벼룩이고, 날아야 하루살이.  
 [한국] 말 속에 말 들었다.  
 [연변] 말 속에 말이 있고, 산 속에 산이 있다.

(1)은 '등잔-발등, 바늘-술발, 자라-차끼·가슴-새·소땡-꼬부랑 나무'와 같이 단어의 치환으로 유의적 속담을 만들되, 한 단어의 치환으로부터 몇 단어의 치환까지 있으나 용어는 대개 같다. (2)는 축약, (3)은 부연, (4)는 절의 첨가(단문-중문)로 유의적 속담을 만들어 구전하고 있다.

그 외 새로운 유의적 속담도 만들어 쓰거나, 새로운 속담을 창작하여 쓰기도 한다.<sup>8)</sup>

- (1) [한국]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연변] 바람 안 새는 벽이 없다.  
 [한국] 입을 비뚤어져도 주라는 바로 붙여라.  
 [연변] 손가락은 구부러졌어도 건너집은 제대로 가리키라.  
 [한국] 한 배를 타게 되면 마음도 한 마음이 된다.  
 [연변] 한 덩대 닭이 한 울음 운다. 한 가마밥 먹은 사람이 한 울음 운다.

8) 김기종 저, 『조선말속담연구』 (동북조선민족교육출판사, 1989, pp.341-343)에 '해방후 새로 조성한 속담, 항에 45개의 새로운 속담이 실려 있음.'

[한국] 우물안 개구리.

[연변] 예조리 깨그루에 앉아서 서울이 보인다고 한다.

[한국] 노루를 피하니 범이 나온다.

[연변] 뒷문을 막으니 뒤벽이 무너진다.

(2) 발등 다르고 발바닥 다르다. = 손등 다르고 손바닥 다르다.

재주 쓰다 매주 쓴다.

가을에 하루 놀면 산땀이 얼홀 내린다.

범은 죽어도 강산을 베고 죽는다.

개 옆에 누우면 벼룩이 옮는다.

먼 산 보고 달리는 말은 지쳐 죽는다.

키가 커도 수수깡은 측간으로 가고, 후추는 작아도 사포상에 오른다.

범을 보면 겁이 나고, 범가죽을 보면 탐이난다.

(1)의 새로운 유의적 속담이나 (2)의 새롭게 만들어 쓰는 속담의 구조를 보면, 사투리만 제외하면 그리 생소한 느낌이 들지 않는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연변의 조선족과 우리 한민족과는 혈통이 같은 민족이요, 그 사유체계나 언어 자산이 같기 때문에 새롭게 만들어진 속담에서도 우리 속담의 구조와 같은 구조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변지방에 전승되는 속담 구조의 일단(一端)을 파악하기 위해 대등구분의 속담을 한 번 보자.

- (1) a) 참대그루에서 참대나고, 짜리그루에서 짜리난다.
- b) 외가닥실은 바로 될 수 없고, 홀로 선 나무는 숲을 못이룬다.
- c) 웃음에 미운 웃음 없고, 울음에 고운 울음 없다.
- (2) a) 먹은 본 사람이 먹고, 육은 듣는 사람이 먹는다.
- b) 좋은 말엔 발이 없고, 나쁜 말은 천 리 간다.
- c) 영웅은 한 번 죽고, 비겁한 자는 천 번 죽는다.
- (3) a) 말 속에 말이 있고, 산 속에 산이 있다.
- b) 뛰어야 벼룩이고, 날아야 하루살이다.

(1)의 a)속담은 '왕대밭에 왕대난다.'와 같은 뜻의 속담, b)속담은 '군중의 힘에 의거하지 않고 혼자서는 용맹은 재간이 없다.'는 뜻의 속담, c)속담은 '고운 사람 미운데 없고, 미운 사람 고운데 없다.'와 같은 뜻의 속담인데, 이들 속담의 진행절·후행절을 각각 독립된 두 구문으로 나누어 써도 그 심층적 의미는 같다. 즉 '참대그루에서 참대 난다.'와 '짜리그루에서 짜리 난다.'로 구문을 나누어

써도 그 의미는 동일하다. 따라서 같은 뜻을 지닌 구문의 되풀이 구조라 할 수 있다.

(2)의 a)·b)·c)의 속담은 후행절이 중심의미를 가진 절이고, 선행절은 후행절에 대한 부차적 의미를 가진 것이다. c)의 경우 선행절을 독립시켜 '영웅은 한 번 죽는다.'로 단문을 만들면, 이에는 단순한 표층의미만이 있다. 후행절 '비겁한 자는 한 번 죽는다.'가 붙어 대등구문을 이루면서 '비겁한 자는 천만 번 죽어도 싸다.'는 심층의미를 가지게 된다.

(3)의 a)·b)의 속담은 선행절이 중심의미의 절, 후행절이 부가적 절이다. 우리의 속담에 '말 속에 말 들었다.', '뛰어야 벼룩'이라는 속담이 있는데, 연변에서는 이 속담에 위와 같은 후행절을 첨가하였다라도 중심의미는 어디까지나 선행절에만 있다.<sup>9)</sup>

이상으로 보는 바와 같이 연변의 조선족 속담의 구조는 우리 속담의 구조와 전혀 차이가 없다. 이는 연변의 조선족이 우리와 동일한 혈통·언어자산·사유체계를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창조하여 전승·보존하고 있는 속담의 구조도 우리의 속담구조와 동일한 민족적 특성을 가진 것이다.<sup>10)</sup>

- 
- 9) 연변지방에서 쓰는 (3b)의 도치구문인 '날아야 하루살이고 뛰어야 벼룩이다.'라는 속담은 그 심층의미가 '본디 시시껄렁하여 그 하는 일도 하찮다는 것'으로 변용하였고, 여기의 속담 '매화도 한 철, 국화도 한 철'(모든 것은 한창 때가 따로 있으나 반드시 쇠하고 만다는 때는 다름이 없다는 뜻)을 연변 지방에서는 두 절을 도치시켜 '국화도 한 철, 매화도 한 철'로 쓰고 그 심층의미도 '모든 사물은 고정불변하지 않고 변하며 한도가 있다는 뜻'으로 쓰고 있다. '웃은 새우이 좋고, 사람은 옛사람이 좋다.'는 속담은 후행절이 중심의미절이 됨을 (2)의 속담들로 보아 자명한데, 절이 도치된 '사람은 옛사람이 좋고, 웃은 새우이 좋다.'는 속담에 대해 연변지방에서는 선행절을 중심의미절로 후행절을 부가적 절로 보고 있는데 반하여 이기문은 표층의미 그대로 풀이하고 있다.
- 10) 민족적 특성이란 역사 발전의 오랜 과정에서 형성되고 발전된 각 나라 민족들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전통·사회생활 등 일련의 특징들이 속담에 반영된 것을 속담의 민족적 특성이라 칭하고자 한다. 속담의 민족적 특성은 속담의 내용에 민족적인 생활 내용과 풍속습관·심리적 특징·민족적 정신 등이 반영되고, 속담의 형식에 언어를 통한 운율·구조·표현수법 등의 특성이 드러난다.〔「문학학습사전」의 '민족적 특성' 참조〕

### 3. 속담에 나타난 이데올로기

북한 속담을 연구한 심재기가 남북한 속담을 비교 연구해 본 바 “북한의 속담들이 남한의 그것들과 원천적으로 동일한 것이며, 속담에 대한 일반 서민의 이해에도 남과 북에 전혀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sup>11)</sup> 고 하였듯이 연변지방의 조선족이 쓰고 있는 속담도 인문적 환경이나 지리적 환경이 우리와 다르다지만 한민족이라는 같은 혈통을 가졌고 언어 자산과 생활양식이 거의 같기 때문에 속담도 한국(이때의 한국이란 남북한을 통털어 일컬음)과 원천적으로 동일하며 속담에 대한 이해도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다. 따라서 속담에 나타나고 있는 조선족의 사유체계도 별반 차이는 없으나 오랫동안 우리와 교류가 없었고 또 사회주의 사회라는 사회체제에 묶여 살면서 속담 응용의 제한성을 받아왔기 때문에 소수의 속담 뜻풀이에는 저들 체제의 이데올로기가 반영되어 있다. 예를 들면

- 가난구제는 나라도 못한다.  
 『속담사전』 :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일은 아무리 하여도 한이 없으므로 매우 어려운 일이라 아무도 못한다는 말.  
 『조선속담』 : 가난이 사회제도 자체의 모순에서 생긴다는 것을 가리우기 위하여 지배계급들이 '가난은 타고난 팔자이기 때문에 개인은 말할 것도 없고 나라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일러 오던 말.  
 『조선말속담사전』 : 사회제도 자체의 모순을 엄폐하기 위하여 지배계급들이 '가난은 타고난 팔자이므로 나라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
-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속담사전』 : 아무리 어려운 처지라도 그것을 벗어나서 다시 잘 될 수 있는 방책이 서게 된다는 말.  
 『조선속담』 :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부닥치더라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노력만 하면 헤치고 나갈 방도가 생긴다는 것을 비겨 이르는 말.  
 『조선말속담사전』 :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부닥치더라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노력만 하면 헤치고 나갈 방도가 생긴다는 말.
- 농민(농사꾼)은 굶어 죽어도 종자(씨 오쟁이)를 베고 죽는다.

11) 심재기, 북한의 속담, 『북한의 말과 글』, 을유문화사, 1989. p.296.

『속담사전』: 제 몸이 죽어버린 후면 종자고 농사고 소용없는 줄 모르고 굶어 죽으면서도 씨를 먹지 않고 남겼다 함이니, 어리석고 답답하게 인식하기만 사람을 이룸.

[참고] 耳談續叢에 ‘農夫餓死 枕厥種子(言 愚吝者 不知身死而財且無用)’

『조선속담』: 농민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종자만은 꼭 보관한다는 뜻으로 농민들이 농사 짓는데서 종자를 잘 보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이르는 말.

『조선말속담사전』: 농민에게 있어서 종자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나만큼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건사를 잘해야 한다는 뜻으로, 농업생산에서 종자가 매우 중요함을 이르는 말. 어리석고 답답하게 인식하기만 한 사람을 이르는 말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그릇된 해석이다.

○ 찬물 먹고 랭돌방에서 담낸다.

『속담사전』: 도무지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이니 하지도 말라는 뜻으로 하는 말.

『조선속담』: 당치 않는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하려는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을 비웃어 이르는 말.

『조선말속담사전』: 당치 않는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하려는 어리석은 행동을 이르는 말.

○ 사또님 말씀이야 다 옳습지.

『속담사전』: 제 의견만이 옳다고 우기는 사람에게 마음속에서는 딴 생각을 하면서도 귀찮아져서 한 걸음 양보하는 말.

『조선속담』: 봉건통치배들의 사리에 어긋나는 강요에 대한 인민들의 반항을 간접적 방법으로 비꼬아 나타내던 말.

『조선말속담사전』: 억압받는 인민들이 순종을 강요하는 지배계급에 대한 간접적 반항으로, 그들의 지시를 은근히 비웃어서 하는 말.

○ 병어리 웃는 뜻은 양반 욕하자는 뜻이다.

『속담사전』: 뜻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 짐짓 미루어 짐작하는 말.

『조선말대사전』: 착취하고 억압하는 자에 대하여 비록 겉으로는 좋은 낱으로 대하나 그것은 다 병어리 웃음처럼 속으로 끓고 있는 앙심의 표현 이외에 아무것도 아님을 형상적으로 이르는 말.

『조선말속담분류집』: 봉건통치배들에 대한 증오와 반항이 병어리의 웃음처럼 속으로 불타면서 밖으로는 보일 듯 말 듯한 풍자로 표현된다는 뜻.

위의 속담 뜻풀이에서 보듯, 몇 개의 한정된 속담에 한하여 연변 속담의 뜻풀이는 북한이 속담 뜻풀이를 거의 맹목적으로 따르고 있다. 이는 연변과 북한

이 같은 사회체제이고, 또 전래 속담을 사상 교양의 도구로 삼아 그들의 정치적 목적에 맞게 활용<sup>12)</sup>하려는 데서 발생된 뜻풀이인 것이다.

연변의 현금석이 책임 편찬한 『조선말속담분류사전』(1993)의 「머리말」에서

“속담은 말과 글의 표현성과 형상성을 높여주며 말과 글을 구수하고 감칠맛이 나게 하며 강한 설득력을 갖게 한다. … 우리들은 학생들이 속담을 참답게 이해하고 널리 찾아 쓰는데 편리를 도모해 주기 위하여 … 매개 속담을 찾아보기 쉽게 분류를 하였으며, 색인도 뒤에 첨부하였다. 뜻풀이는 알기 쉽도록 하였으며, 적절하게 쓰는데 도움이 되도록 많은 예문을 주었다.”<sup>13)</sup>

라 하고, ‘예문’에 대해서는 많은 공력을 들여 만들었다고 하였는데 그 예문을 보면,

- ‘뿌리가 다르면 줄기가 다르고 줄기가 다르면 아지가 다르다.’고 계급립장이 다르니 두 형제간에도 총부리를 맞대고 싸웠다.
- ‘승냥이가 양으로 되랴’ 국제 반동세력들은 입으로는 완화요, 원조요 하지만 실은 사회주의 나라와 약소국가에 대한 침략과 전복 활동을 한 시도 늦춘 적이 없다.
- ‘개미 천 마리면 바위돌도 굴린다.’고 녀성 로력이라도 많이 동원하면 오늘 모래 운반을 제 때에 끝낼 수 있소.
- ‘고기도 씹어야 맛을 안다.’는 말과 같이 오직 현실을 변혁시키는 실천에 직접 참가해야만 객관사물을 료해할 수 있고, 객관사물의 본질을 장악할 수 있다.
- ‘부처님 밑구멍의 삼거웃 같다.’는 말과 같이 침략자의 앞잡이인 선교사놈들은 겉으로는 번드르르하게 좋은 말을 늘어 놓지만 속은 너절하기 짝이 없는 놈들이지요.

이와 같이 계급주의 내지 자본주의 사회와의 투쟁 내지 그 사회를 배격하고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속담의 예문을 만들어 보임으로써 속담을 사회주의 사상 고취와 혁명사업의 도구로써 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책자의 예문 1450여개 가운데 이런 어투로 만들어 실은 예문이 7.59%인 110여개가 있다.

그리고 연변지구 조선족에 전승되는 속담에도 이런 사상 이념이 담긴 속담이 더러 만들어져 쓰이고 있다. 이런 속담 몇 개를 예로 들어보면,

12) 심재기, 앞의 논문, p.295.

13) 현금석 외 2인, 『조선말속담분류사전』, 동북조선민족교육출판사, 1993. p.1.

- (1) 강도는 칼로써 맞서야 하고 미친개는 몽둥이로 맞서야 한다. : 원수들이 대하는 태도에 따라 그에 맞게 대처해야 한다는 말.
- (2) 나다니는 머저리 앉아 있는 영웅보다 낫다. : 실천의 중요성을 이르는 말.
- (3) 마음만 맞으면 성을 이룬다. ; 민중이 한 마음 한 뜻이면 마치 견고한 성과 같다는 뜻으로, 여러 사람이 단결하면 그 힘이 비할수 없이 큼을 이르는 말.
- (4) 부자에게 량심이 있으면 강물이 거꾸로 흐른다. : 반동 통치계급에게는 티끌만한 량심조차 있을 수 없다는 말.
- (5) 숲쟁이도 제 집에 들면 주인이다. : 아무리 보잘 것 없는 존재라 해도 사람은 자기의 주관이 있고 개성이 살아있다는 말.
- (6) 승냥이는 양으로 변하지 않는다. : 제국주의자들의 침략본성이나 계급적 원수들의 반동 본질은 변하지 않음을 이르는 말.
- (7) 승냥이는 몽둥이로 때려잡아야 한다. : 침략해오는 적들은 무력으로 맞서 싸워야 한다는 뜻.
- (8) 외가닥 실은 바로 될 수 없고, 홀로 선 나무는 숲을 못 이룬다. : 군중의 힘에 의거하지 않고 혼자서는 용 빼는 재간이 없다는 뜻.
- (9) 적이 주는 것은 독약이 아니면 비수다. : 적들의 음험하고 교활한 수단에 경각성을 높여야 함을 이르는 말.
- (10) 참대 그루에서 참대 나고 짜리 그루에서 짜리난다. : 근본이 좋은 곳에서 좋은 것을 낳는다는 말. 계급사회에서 지배계급은 선천적으로 계승적인 통치자로 출생한다는 기만성을 내포하고 있다.
- (11) 천하의 까마귀는 다 겹다. : 천하의 착취자·압박자는 모두 한 본색으로 나뉘를 형용하여 이르는 말.
- (12) 코기러기 높이 날면 못기러기도 높이 난다. : 지도간부가 앞장 서서 힘을 내면 군중들도 뒤따라 힘을 낸다는 말.
- (13) 하루매가 재를 넘는다. : 주로 미신을 타파하고 과감히 혁명하는 청년을 이르는 말.
- (14) 화분에서 만년송을 키울 수 없고, 뜰에서 천리마를 길들일 수 없다. : 광활한 혁명 실천 가운데서 풍량을 겪으며 단련 성장되어야 한다는 뜻.
- (15) 순금은 진토 속에서도 변함이 없다. : 혁명자의 굳은 절개는 그 어떤 역경이나 풍파에서도 변함이 없다는 말.

이들 속담의 뜻풀이 가운데 (1)은 상대방이 대하는 태도에 따라 그에 맞게 대처해야 한다는 속담이고 (3)은 '의논이 맞으면 부처도 앙군다.'의 변용 속담이며, (5)는 보잘 것 없는 사람이라도 제집에 들어가면 주인이 된다는 속담이며, (6)은 포악한 본성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속담이고, (10)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원인에 따라 결과가 생긴다는 말)의 변용속담이며, (11)은 같은 부류는 다 같은 본성을 가졌음을 이르는 속담이고, (13)은 '하룻 비둘기 재를 못

넘는다.’(경험과 실력이 없이 자만심만 가지고는 일을 이룰 수 없다는 말)는 속담에서 ‘비둘기’(온순성의 새)를 ‘매’(용감성의 새)로 바꾸어 새로운 속담을 만든 것이고, (12)는 큰 인물을 만드는데는 그에 걸맞는 여건이 필요함을 이르는 속담이며, (15)는 ‘옥은 흠에 묻혀도 옥이다.’(좋지 못한 곳에 놓인다 해도 좋은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의 변용 속담인데, 위와 같은 뜻풀이를 붙임으로써 사회주의사회의 혁명과 건설에 들맞은 교훈적 속담으로 응용되게끔 만든 것이다.

연변지방의 현전 속담 가운데는 주제가 ‘본성이나 본질은 결코 개변되지 않는다. 또는 본성은 속일 수 없다.’ 고 하는 속담이 만들어져 쓰이고 있다.

- (1) 개는 똥먹는 버릇을 고치지 못한다.
- (2) 독사가 껍질을 갈아도 그 심장은 변하지 않는다.
- (3) 돼지는 앞으로 뛰지고 닭은 뒤로 파헤친다.
- (4) 송냥이는 양으로 변하지 않는다.
- (5) 까마귀 공작의 깃을 달아도 역시 까마귀다.
- (6) 비린 것 안 먹는 고양이 없다.
- (7) 천하의 까마귀는 다 검다.

이들 속담 가운데 등장되는 개·독사·송냥이·까마귀는 부정적 내지 반동적 인물을 형상하기 위해 쓰인 동물들이다. 이들 동물은 곧 봉건적 낡은 사회에서의 지배계급이나 지주계급 내지 제국주의의 자산가 계층의 인물들을 비유한 것이다. 사회주의사회의 건설과 혁명에 있어서 타도되어야 할 이들 반동적 인물들은 그 본성을 개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회가 주어지면 그 본성을 속일 수 없이 드러내는 속성이 있는 만큼, 항상 철저한 경계심을 갖고 대처해야 함을 비겨 만든 속담들이다. 그리고 이들 속담들에는 출신성분(노동자·농민)을 중시하는 사회주의사회의 한 단면도 드러내고 있다고 하겠다.

또 연변지방의 속담에는 일(노동)을 중요시하는 교훈적 속담이 있다.(북한지역도 마찬가지임)

- (1) 부자(부모와 자식)간에도 일이 사랑. :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이르는 말.
- (2) 삼대독자 외아들도 일해야 곱다. :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이르는 말.
- (3) 앓은 량반보다 빌어먹는 거지가 낫다. : 놀고먹는 지배자들을 조소하는 데서 나온 말로서, 자기 손으로 일해서 먹는 것이 제일이라는 말.

- (4) 천금 사랑은 없어도 일 사랑은 있다. : 천금으로 남의 사랑을 억지로 살 수는 없어도 일을 잘하면 남의 사랑을 받게 된다는 뜻으로, 일이 돈보다 더 귀중함을 이르는 말.
- (5) 사람이 고운 게 아니라 일이 곱다. : 로동을 사랑하고 부지런히 일해야 한다는 뜻.

사회주의사회에서 역사적 유물론의 기저에 자리잡고 있는 인간관인 인간을, 자신의 노동에 의하여 구성되는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존재<sup>14)</sup>로 볼 때, 노동행위는 사회의 물질적 삶을 구성하는 근본적인 요소요 생산양식은 사회적 삶의 물질적 기초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에 의한 생산이 사회적 성격을 지니는 만큼 그에 부응하여 노동을 권장하고 노동행위를 찬양하는 속담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전승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노동활동 가운데서도 연변지방에서는 농업생산활동을 중시하는 속담이 구전되고 있다.

- (1) 사람의 입은 농군이 친다. : 농사를 하지 않고는 먹고 살 수 없으니 농사가 얼마나 중대한가를 나타내는 말.
- (2) 자식 죽는 건 봐도 곡식 타는 건 못 본다. : 농민들이 농사일에 쏟는 정성이 자식에 대한 정성보다 더 큼을 비겨 이르는 말. (남북한에서도 쓰고 있는 속담)
- (3) 애비코는 밭아도 논코는 밭지 말라. : 벼농사에 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물을 눈에 가두어 두기위해 논고를 밭지 말라는 뜻.
- (4) 꽃은 계속 피어야 꽃이다. : 꽃이 계속 피어야 아름답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과 같이 사람도 계속 일을 잘 해야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르는 말.

위의 속담 가운데 (2)는 연변과 남북한지방에 두루 구전되는 속담으로 이기 문은 “농부들이 지어 놓은 농사일에 온정성을 다 하는 것을 보고 하는 말.” 이라 뜻풀이하였지만, 이 속담의 본뜻은 가뭄에 타는 곡식을 차마 볼 수 없다는 안타까운 심정을 자식 죽는 것에 비유하여 이르는 반어적 수법의 속담인데, 김영환은 위와 같이 농사일에 쏟는 정성이 자식에 대한 정성보다 더 큼을 비겨 이르는 말이라고 뜻풀이하고 있다.

14) 알렉스 캘리니코스 지음, 정남영역, 『현대철학의 두 가지 전통과 마르크스주의』, 갈무리, 1995, p.171.

(1)과 (4)는 북한에서도 구전되는 속담이나 (3)은 연변지방만의 구전 속담으로 반어적 수법을 써 벼 생산에 있어서 물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농업생산활동을 중시하는 가운데서도 곡물의 증산을 위해 비료(거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속담들이 꽤 많이 구전되고 있다.

- 거름더미는 쌀더미다.
- 거름 한 더미는 쌀 한 더미.
- 거름산이 높아야 량식산이 높아진다.
- 황금산에 오르려면 먼저 거름산에 올라야 한다.
- 거름 무지를 보고 쌀 뒤주를 틀라.
- 거름없는 농사질은 소경의 막대 겨눔이다.
- 비료 더미는 알곡 더미.
- 비료는 량식.
- 비료는 량식의 량식.
- 비료 무지 커야 쌀 뒤주 크다.

연변지방의 척박한 땅을 일구어 농지를 만들고 농작물의 수확고를 높이려면 자연 퇴비나 비료의 증산이 대단히 중요한 몫을 차지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속담으로 퇴비나 비료의 준비를 권장 내지 독려하게 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우리의 속담에 ‘거름보다도 팽이질이다.’ 또는 ‘거름보다 호미에 크다.’ 라는 것이 있는데, 이 두 속담은 농작물에 있어서는 거름도 중요하지만 이보다도 농작물에 자주 손질을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연변지방에서는 이런 속담으로 ‘손끝이 거름’이라 하여 농작물에 부지런히 손질하는 것이 거름과 같다고 하였다.

또 농작물 가운데서는 벼농사를 중히 여긴 결과 ‘종자’와 ‘모’에 대한 다음의 속담이 있다.

- (1) 발 자랑 말고 모 자랑 하랬다.
- (2) 농사군은 열흘 굶어도 종자만은 다치지 않는다.
- (3) 돈 주고 종자는 사도(살 수 있어도) 모는 못 산다.

속담 (2)는 농업생산에서 종자가 매우 중요함을 이르는 것이고, 속담 (3)은 벼농사에 있어서 ‘모’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르는 속담이다.

- (1) 돈이라면 뒷에라도 들어간다.
- (2) 돈이라면 대통 그림자라도 따라간다.
- (3) 돈이라면 배속 아이도 손을 내민다.

속담 (1)(2)는 같은 의미의 속담으로 ‘돈이라면 오금을 못쓰는 사람을 조롱하여 이르는 말’ 이라 하고, 속담 (3)은 ‘돈만 있으면 귀신도 부릴 수 있다.’는 속담과 같은 것이라고 뜻풀이 하면서 뜻풀이 앞에 ‘납은 사회에서’ 라는 제한성 표기가 붙어 있다. 이 속담을 납은 사회에서는 돈만 가지면 세상에 못할 일이 없다는 자본주의 사회의 황금만능의 사회적 본질을 여실히 보여주는 속담<sup>15)</sup> 이라지만 돈에 대한 관념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데 유독 ‘모’ 만은 돈으로도 결코 못 산다고 한 것을 볼 때, 모에 대한 그들의 인식태도가 대단함을 보여준다.

그리하여 농사에 대한 북한의 속담에

- (1)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농사는 속일 수 없다. : 사람은 거짓말로 속여 넘길 수 있으나 농사는 품을 들인 만큼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속일 수 없다는 뜻으로 농사일이란 실속 있게 해야지 형식적으로 해서서 안 된다는 것을 교훈적으로 이르는 말.
- (2) 사람의 눈은 속여도 땅은 속이지 못한다. : 농사는 공을 들인 만큼 수확이 나므로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이르는 말.

라는 이 속담을 연변지방에서는 변용하여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 (1)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땅은 못 속인다. : 농사에서 밭을 잘 가꾸어야 함을 이르는 말.
- (2) 사람이 땅을 속이면 땅도 사람을 속인다. : (1)과 같은 속담.
- (3) 사람이 밭을 하루 속이면 밭은 사람을 일년 속인다. : (1)과 같은 속담.

농작물의 수확고와 노동은 비례함을 이르는 이들 속담은 땅에 대한 믿음성과 권농사상으로 맺어져 있는데, 이는 곧 양식에 대한 절약의 교훈적 속담으로 이어진다.

○ 가을 남가리보고 밭 짓다간 여름밭을 묵인다.

15) 리동원, 『조선구전문학연구(Ⅰ)』,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2, p.210.

- 가을에 쉬어버린 밥 김 철에 생각난다.
- 가을 간식이 봄 량식이다.

이들 속담은 풍년이 들거나 식량이 풍성하였거나 간에 식량을 낭비하지 말고 절약하라는 교훈적 속담이다. 이와 같은 뜻의 속담으로 우리쪽 속담(남북한 속담)에는 '가을 식은 밥이 봄 양식이라.'가 있을 뿐이다.

이상으로 속담에 대해 논의한 바를 보면, 연변지방의 조선족이 집체적으로 창조한 속담에는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가 깊게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4. <제한성 표기>에 대한 검토

연변과 북한의 속담풀이에는 뜻풀이 앞에 제한성 표기(이하 '제한구'라 칭함)를 하였다. 이 제한구를 보면, 연길의 연변대학 조선어문학부에서 펴낸 『조선말 속담사전』(1981)에서는 제한구를 '(1) 지난날에 (2) 봉건사회에서 (3) 낡은 사회에서 (4) 낡은 관념에서 (5) 낡은 사상관념에서 (6) 유교적 관념에서 (7) 불교적 관념에서 (8) 낡은 관점에서 (9) 미신에서 (10) 미신적 관념에서 (11) 과거사회에 있었던 관계에서 (12) 지난날에 있었던 관계에서'를 붙였고, 김영환의 편저로 연변인민출판사에서 펴낸 『조선말속담분류집』(1987)에서는 제한구를 '(1) 지난날에 (2) 지난 사회에서 (3) 봉건사회에서 (4) 낡은 사회에서 (5) 낡은 사상의식에서 (6) 낡은 관점에서 (7) 민속에서 (8) 낡은 생활양식에서'를 붙였다.

그런데, 북한의 과학백과사전출판사에서 펴낸 『조선속담』(1984)에서는 제한구를 '(1) 옛날에 (2) 지난날에 (3) 낡은 사회에서 (4) 낡은 생활양식에서 (5) 낡은 생활풍속에서 (6) 낡은 관점에서 (7) 낡은 사상관점에서 (8) 낡은 사상의식에서 (9) 낡은 관념에서 (10) 낡은 사상관념에서 (11) 봉건사회에서 (12) 봉건적 관념에서 (13) 봉건적 도덕관념에서 (14) 낡은 봉건적 관념에서 (15) 봉건 유교적 관념에서 (16) 착취사회에서 (17) 민속에서 (18) 옛날 민속에서 (19) 장기에서 (20) 율놀이에서 (21) 풍속에서 (22) 생활인습에서 (23) 종교적 관념에서 (24) 종교미신적 관념에서 (25) 미신에서 (26) 미신적 관념에서 (27) 관념론적 관점에서 (28) 속명론적 관점에서 (29) 속명론적 관념에서 (30) 리기주의적 립

장에서 (31) 삶에 대한 낯은 관점에서’를 붙였고, 사회과학원 언어연구소에서 펴낸 『조선말대사전』(1992)에서는 ‘(1) 옛날에 (2) 전날에 (3) 리조때 (4) 일제 때 (5) 낯은 사회에서 (6) 낯은 생활양식에서 (7) 낯은 생활관념에서 (8) 낯은 생활풍속에서 (9) 낯은 관점에서 (10) 낯은 사상관점에서 (11) 낯은 사상의식에서 (12) 봉건사회에서 (13) 봉건적 관례에서 (14) 봉건적 관념에서 (15) 봉건적 도덕관념에서 (16) 낯은 봉건적 관념에서 (17) 착취사회에서 (18) 사회주의 사회에서 (19) 민속에서 (20) 옛날 민속에서 (21) 율놀이에서 (22) 지난날 혼례에서 (23) 종교적 관념에서 (24) 종교미신적 관념에서 (25) 불교에서 (26) 천도교에서 (27) 미신에서 (28) 미신적 관념에서 (29) 숙명론적 관점에서 (30) 숙명론적 관념에서 (31) 남존여비의 낯은 관점에서’ 를 붙였다.<sup>16)</sup>

연변지방에서 펴낸 속담집에 쓰인 제한구는 북한의 속담풀이에 제한구 붙임을 참고<sup>17)</sup>해 붙였지만 제한구를 대폭 줄여 붙였음을 알 수 있다.

제한구의 붙임에 대해 『조선속담』의 「일러두기」에서

“여기에서는 속담이 주로 사람들의 입말에서 많이 쓰인다는 점을 고려하여 교양적 가치가 없는 것, 낯은 사회에서 지배계층의 이익을 반영하여 만들어진 것들은 원칙적으로 올리지 않았다. 그러나 인민들 속에서 비교적 많이 쓰이는 속담들은 제한성을 뜻풀이에서 밝혀 주면서 올렸다.”

라 하여 교양적 가치가 없는 속담과 낯은 사회에서 지배계층의 이익을 반영하여 만들어진 속담들은 원칙적으로 신지 않되, 인민들 속에서 비교적 많이 쓰이는 속담들은 제한성을 뜻풀이 앞에 밝혀 주면서 실었다고 하고 “현재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에서 쓰이지 않는 것들은 뜻풀이에서 《…을 이르던 말》로 처리하였다.” 고 언급하였다.

그러면 먼저 『조선속담』에서 《…을 이르던 말》의 용례를 보자.

- (1) 똥누고 밀 안 셋은 것 같다 : 뒤처리가 깨끗하지 않아서 꺼림직함을 비겨 이르던 말.

16) 정희원이 『조선말대사전』에서 뽑아낸 ‘제한적 어구’를 참조한 것임(『북한의 국어사전분석(IV)』, 1995, 국립국어연구원)

17) 1962년도 북한과학원출판사에서 펴낸 『조선말사전』(한국:동광출판사,1992)의 속담에 제한구가 이미 붙어 있음.

- (2) 불꽃도 한때 : <지난날> 한창 번성하다가 시들어지는 것을 이르는 말.
- (3) 불 탄 개가죽 오그라지듯 : 불에 탄 개가죽이 오그라들듯이 무엇이 견장을 수 없게 줄어들는 모양을 비겨 이르던 말.

위의 속담 뜻풀이를 볼 때 (1)(3)은 '이르는'으로 풀이하여야 옳고, (2)는 앞의 제한구를 보아 '이르던'으로 풀이하여야 옳은 것이다. 『조선속담』에서는 뜻풀이 앞에 제한구가 붙을 때는 거의 <…을 이르던 말> 이라 풀이하던 것을 연변쪽에서는 <…을 이르는 말> 로 통일하였다.

다음으로 제한구를 붙이는 용례를 보자.

- (1) 열 사위 미운데 없고 외머느리 고운데 없다.  
『조선속담』 낚은 사상의식에서  
『조선말대사전』 낚은 사상의식에서  
『조선말속담사전』 지난날에 있었던 관계에서  
『조선말속담분류집』 속담을 신지 않음
- (2) 미운 열 사위 없고 고운 외머느리 없다.  
『조선속담』 생활인습에서  
『조선말대사전』 제한구 없음  
『조선말속담사전』 속담을 신지 않음  
『조선말속담분류집』 제한구 없음
- (3) 산천도망은 해도 팔자도망은 못한다.  
『조선속담』 관념론적 관점에서  
『조선말대사전』 숙명론적 관점에서  
『조선말속담사전』 미신적 관념에서  
『조선말속담분류집』 속담을 신지 않음
- (4) 팔자는 독에 들어가도 못 피한다.(=팔자도망은 못한다, 팔자도망은 독 안에 들어도 못한다.)  
『조선속담』 미신적 관념에서  
『조선말대사전』 숙명론적 관념에서  
『조선말속담사전』 제한구 없음  
『조선말속담분류집』 제한구 없음
- (5) 부귀는 하늘이 낸다.  
『조선속담』 낚은 사상관념에서  
『조선말대사전』 숙명론적 관점에서  
『조선말속담사전』 속담을 신지 않음  
『조선말속담분류집』 속담을 신지 않음
- (6) 봉사님 마누라는 하느님이 접지한다.  
『조선속담』 종교미신적 관념에서

『조선말대사전』 숙명론적 관념에서  
 『조선말속담사전』 속담을 신지 않음  
 『조선말속담분류집』 제한구 없음

(1)과 (2)는 같은 뜻의 속담으로 사위는 열이나 되어도 하나도 미운 데가 없지만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는 성에 차지 않고 하는 것마다 다 밋게 보인다는 뜻으로 '사위를 덮어놓고 사랑하고 며느리를 덮어놓고 미워하는 시어미의 심리 상태'를 비쳐 이르는 말이다. 그런데 그 제한구를 보면 『조선속담』에서는 '(1) 낡은 사상의식에서 (2) 생활인습에서'라 하여 제한구를 각각 달리 붙였고, 『조선말대사전』에서는 '(1) 낡은 사상의식에서'라고 제한구를 붙였으나 (2)에는 제한구를 붙이지 않고 있다.

(3)과 (4)도 같은 뜻의 속담으로 '제에게 운명지어진 팔자는 어쩔 도리가 없다. 또는 타고난 운명은 피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런데 그 제한구를 보면 『조선속담』에서는 '(3) 관념론적 관점에서 (4) 미신적 관념에서'라 하여 제한구를 각각 달리 붙였고, 『조선말대사전』에서는 '(3) 숙명론적 관점에서 (4) 숙명론적 관념에서'라 하여 제한구를 각각 달리 붙였다. 『조선말속담사전』에서는 (3)에 '미신적 관념에서'라는 제한구를 붙였으나 (4)에서는 제한구를 붙이지 않았다.

(5)와 (6)은 표층적 의미는 같지 않은 속담이나 심층적 주제는 '팔자(운명)는 하늘이 점지한다'이다. 이 두 속담에 대해 『조선속담』에서는 '(5) 낡은 사상관념에서 (6) 종교미신적 관념에서'라 하여 제한구를 각각 달리 붙였고, 『조선말대사전』에서는 '(5) 숙명론적 관점에서 (6) 숙명론적 관념에서'라는 제한구를 각각 달리 붙이고 있다. 이들 속담 가운데 숙명론적 관념에서 만들어진 속담 (3)(4)(5)(6)에 대하여 『조선말대사전』에서는 일정한 변별점을 가지고 제한구 용어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있으나, '숙명론적 관점/숙명론적 관념'의 변별은 사실상 애매하며, 『조선속담』에서는 '관념론적 관점/미신적 관념/낡은 사상관념/종교미신적 관념'이라는 각이한 제한구의 사용을 감안할 때 수집한 속담을 풀이한 자가 자기 주관에 의해 뜻풀이 앞에 붙인 제한구를 사전 편찬자들이 사전에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붙여 놓은 것에서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았나 여겨진다.<sup>18)</sup>

18) 심재기, 앞의 논문, p.291.

속담에 대하여 고정옥이 언급한 것처럼 오늘날도 일상적으로 쓰이는 많은 속담들이 봉건시대의 소산이고, 또 여러 계층의 속담들이 그 쓰일 수 있는 경우는 각각 다르고 실지 언어생활에서의 빈도(頻度)에도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어느 사회에서 발생했거나 간에 오늘날 전승·보존되고 있는 속담은 그 어느 것이나 현대 언어문화에 일정하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굳이 제한성 표현구를 붙일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다시 말해 현재 전승되고 있는 대부분의 속담이 지난날 우리 선조들이 창조·전승한 것이며, 현재도 언어생활에 일정하게 사용되며 그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한구를 사용하지 않음이 좋을 듯하다.

추측컨대 북한이나 연변의 속담 뜻풀이에 제한구를 붙이게 된 취지는 “속담 자체가 지난날 낡은 사회제도를 적지 않게 반영하고 있는 만큼 속담을 쓸 때에는 반드시 그 내용과 성격을 잘 고려하여 옹계 쓰도록 각별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sup>20)</sup>라고 하였지만, 실은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봉건지배계급 내지 자산계급의 의식형태가 침투된 속담-반동적 속담을 의식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함과 아울러 사회주의 사회의 우월성을 들내기 위한 선전적 의도에서 제한구를 붙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의 제한구를 보면 이를 뒷받침한다.

- (1) 위대한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였으므로 빈곤이 퇴치된(또는 빈곤을 극복한) 풍요로운 사회라는 선전상
  -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한다. : <낡은 사회에서>
  - 책력을 보아가며 밥 먹는다. : <낡은 사회에서>
  - 보리고개에 죽는다. : <낡은 사회에서>
  - 허리띠가 량식. : <낡은 사회에서>
  - 가난한 집 제삿날 돌아오듯. : <낡은 사회에서>
  - 빗값에 계집 빼앗기. : <낡은 사회에서>
- (2) 사회주의 사회에는 계급적 차등이나 빈부의 차등이 없는 이상적 사회라는 선전상
  - 백정이 량반행세를 해도 개가 짓는다. : <낡은 사회에서>
  - 말 타면 중 두고 싶다. : <낡은 사회에서>
  - 가보쪽 같은 량반. : <낡은 사회에서>
  - 부자가 하나이면 세 동네가 망한다. : <낡은 사회에서>
  - 상놈의 살림이 량반의 량식. : <낡은 사회에서>

19) 고정옥, 『조선구전문학연구』, 과학원 출판사, 1962, pp.307~308.

20) 『조선속담』,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4, p.1

- 재떨이와 부자는 모일수록 더럽다. : <낯은 사회에서>
- (3) 사회주의 사회에는 남녀차별이 없는 평등사회라는 선전상
  - 딸은 두 번 서운하다. : <낯은 사회에서>
  - 녀편네 팔자는 뒤응박 팔자라. : <낯은 사회에서>
  - 녀인은 돌면 버리고 기구는 빌리면 깨진다. : <낯은 사회에서>
  -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 <낯은 사회에서>
- (4) 사회주의 사회에는 미신이나 미신전 관념이 사라진 밝은 사회라는 선전상
  - 망신살이 뻗치다. : <미신에서>
  - 우물 귀신 사람 잡아 넣듯. : <미신에서>
  - 사주에 없다는 관을 쓰면 이마가 벗어진다. : <미신적 관념에서>
  - 죽기 살기는 시왕전(十王殿)에 매였다. : <미신적 관념에서>
  - 제 팔자 개 못준다. : <미신적 관념에서>

이상의 몇 용례로 보아 제한구의 사용에 대하여 “단어의 뜻과 쓰임을 정확히 알도록 하기 위하여 올림말이나 개별적 뜻이 일정한 시기 또는 일정한 부문에 단 한정되거나 일정한 문체론적 특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필요한 전체 또는 특성을 풀이의 앞과 뒤에 달아주었다.”<sup>21)</sup>지만 제한구 용어의 개념 규정에 대한 논급이 없고, 그 사용에 일관성이 결여됨으로 해서 제한구의 의미가 속담 뜻풀이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사회주의 사회의 우월성을 선전하기 위한 의도에서 제한구를 붙이게 되었다면 이 제한구 사용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것이다.

## 5. 결 론

이상과 같이 중국조선족 속담의 구조와 속담에 투영된 이데올로기를 천착해 본 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되었다.

첫째, 연변의 조선족 속담의 구조는 우리 속담의 구조와 전혀 차이가 없다. 이는 연변의 조선족이 여기와 다른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은 혈통·언어자산·사유체계를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창조하여 전승·보존하고 있는 속담의 구조도 우리의 속담 구조와 동일한 민족적

21) 사회과학원 언어연구소편, 『조선말 대사전』, 동광출판사, 1992, p.4 「뜻풀이의 방식」.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구비문학의 한 장르인 속담을 통해 볼 때, 방언을 제외하면 언어문화의 이질화 현상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연변의 조선족이 약 반세기 동안 우리와 다른 체제 속에 살면서 집체적으로 창조했다는 속담에는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이라는 당면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깊게 투영되어 있지만, 이들 속담은 우리 민족정서에 적합한 속담이 아니기에 저들 속담집에 실려 있다손치더라도 우려할 문제가 아니라고 여겨진다. 그 이유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담긴 이들 속담은 곧 소멸될 역사적 운명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연변에서 간행된 속담집의 속담 뜻풀이 앞에 시대상을 표시하기 위해 붙인 제한구는 그 용어의 개념규정이 없고, 그 사용에 일관성(통일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사회주의 사회의 우월성을 선전하기 위한 의도에서 붙였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만큼, 제한구 사용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참 고 문 헌

- 金思燁 著, 『俗談論』, 大建出版社, 1953.  
 李基文 編, 『俗談辭典』, 一潮閣, 1962.  
 張德順 외 3人 共著, 『口碑文學概說』, 一潮閣, 1971.  
 김기종 저, 『조선말속담연구』, 동북조선민족교육출판사, 1989.  
 현금석 외 2인, 『조선말속담분류사전』, 동북조선민족교육출판사, 1993.  
 연변대학 조선어문학부 <<조선어속담사전>> 편찬조, 『조선말속담사전』 연변인민출판사, 1981.  
 김영환 편저, 『조선말속담분류집』, 연변인민출판사, 1987.  
 리춘학, 『우물안 개구리』, 연변인민출판사, 1990.  
 엄병섭 외, 『조선속담』,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4. [한국 : 탑출판사, 1990]  
 과학원언어문학연구소 『조선말사전』, 과학원출판사, 1962. [한국 : 동광출판사,

1992]

- 사회과학원 언어연구소편, 『조선말대사전』, 1992. [한국 : 동광출판사, 1992]
- 한진건, 『조선속담이야기』, 료녕민족출판사, 1988.
- 정희원, 『북한의 국어사전 분석(IV)』, 국립국어연구원, 1995.
- 고정옥, 『조선구전문학연구』, 과학원출판사, 1962. [한국 : 書光, 1989]
- 장권표, 『조선구전문학개요(고대중세편)』, 사회과학출판사, 1990. [한국 : 민족문화사 복사판]
- 김성우·김창학 공저, 『문학학습사전』,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1993.
- 리동원, 『조선구전문학(1)』,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2.
- 沈在箕, 『國語語彙論』, 集文堂, 1990.
- 심재기, 「북한의 속담」, 고영근 책임편집 『북한의 말과 글』, 을유문화사, 1989.
- 鄭相珍, 「俗談」, 『한국구비문학개론』, 민속원, 1995.
- 李鍾喆, 類義의 俗談의 形態의 樣相의 考察, 『先淸語文』22집, 서울대 사대국어교육과, 1994.
- 김선풍·김금자 지음, 『한국민간문학개설』, 국학자료원, 1987.
- 류은중, 속담의 의미적 특성, 『조선학연구』제4권, 연변대출판사, 1992.
- 김종택, 속담의 의미기능에 관한 연구, 『국어국문학』34·35 합병호, 국어국문학회, 1967.